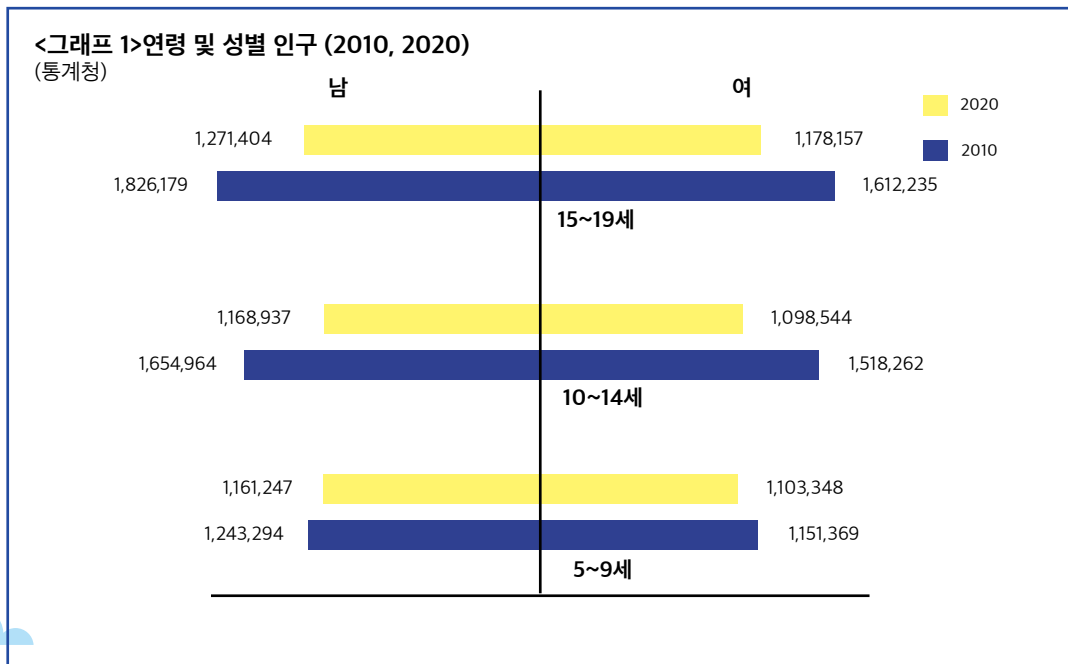


I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성경학교

해마다 여름이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역 축제처럼 열렸던 여름성경학교를 기억하십니까? 현재 기독교 장년 세대는 '어린 시절 성경학교 때 전도되어 맺어진 열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여름성경학교는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끌어 온 핵심 동력입니다. 2023년 여름성경학교 역시 다음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전화위복의 기회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 교회학교의 위기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한편으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며 이 위기는 가속화되었고, 2021년 교단별 통계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프 1>은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총조사 결과입니다. 2010년 대비 2020년에 5-19세 모든 구간과 성별에서 인구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9세 총 합은 9,006,303명에서 7,047,472명으로 약 196만명, 21%가 감소했습니다.

2)



*그래프 출처 : 인구총조사를 바탕으로 팻머스에서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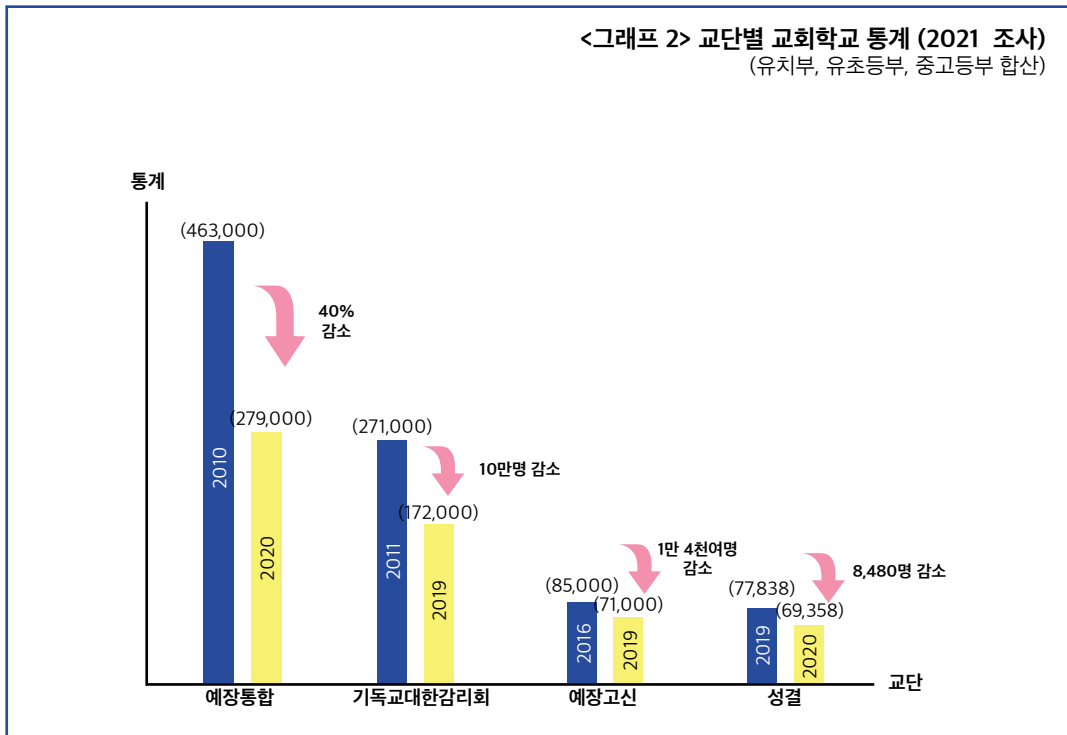
1) 방현철, "교회학교 교육패러다임 전환 절실, 존폐 위기에 내몰린 교회가 늘고 있다", 기독교신문사, 2022.01.26, <http://gdknews.kr/news/view.php?no=11870>

2)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0, 2020, 연령 및 성별 인구





<그래프 2>는 교단별로 집계한 교회학교 통계입니다. 2010년 대비 2020년에 우리나라 5-19세 인구가 감소한 비율보다, 교회학교 통계가 감소한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5-19세 전체 인구가 21% 감소했는데, 예장 통합교단의 교회학교 인원은 40% 감소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코로나19 기간 교회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상황이 이 격차를 더 빠르게 늘렸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출처 : 교단별 통계를 참고로 팻머스에서 참고

코로나 방역수칙이 완화되고, 마스크를 벗고 만날 수 있는 올해 여름! 하나님께서 우리 장년 세대에 게 허락하신, 다음세대를 위해 교회 전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학교는 주제와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도'는 성경학교의 결과로, 부수적으로 맺어지는 열매로 여겨왔습니다. 또는 성경학교와 별도로 교회 전체나 교육 부서에서 전도 집회, 새생명 축제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한 번 한 번의 기회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할 때입니다. 한 해의 가장 많은 교육 예산, 선생님들, 봉사자들이 모일 수 있는 때는 바로 여름성경학교입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다음세대 영혼 구원의 열매가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 곳곳에서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르짖으며, 교회의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와봐봐봐 컴앤씨> 성경학교는 주제와 내용의 초점을 모두 '영혼 구원'에 맞추었습니다. 이 영혼 구원은 교회 밖에 있는 새로운 영혼을 찾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동안 예배와 공동체의 자리를 벗어나, 아직도 떠나있는 우리 부서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다시 불러야 합니다. 교회 성경학교를 시작하기 한 달 전부터, 복음 전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4주간의 '앤드류 트레이닝'이 매 주일 정규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4주간의 훈련 과정을 따라가며 다시 복음의 기초를 배울 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에게 다가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복음 잔치에 초대합니다. "얘들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전도해야 하지 않겠니?"라며 교육하고 동기 부여하는 시간으로 끝나는 성경학교가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 우리 교회 학생들이 먼저 복음을 깨닫고, 전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영혼을 만나는 성경학교. 그래서 공동체의 안과 밖이 세워지는 성경학교로 <와봐봐봐 컴앤씨>는 준비되었습니다.

I 복음을 배우고, 배운 복음을 전하여 초청하는 성경학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요한복음 1장 39절

요한복음 1장 35~42절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당신을 따르려는 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왜 따르는지, 그분께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지,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예수님이 어디에 머무시는지 물었습니다. 두 제자의 대답에는 예수님의 삶 속으로 가서 그분의 삶을 배우고 싶은 소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삶 속으로 초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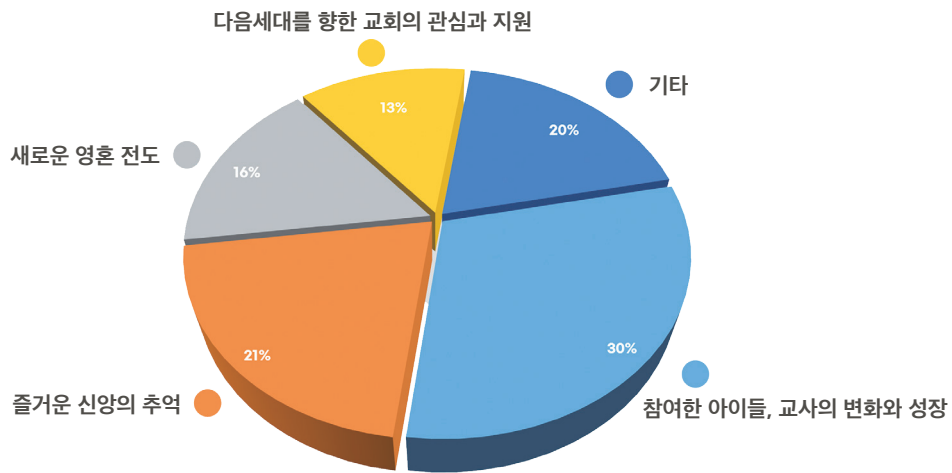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서 그날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그리스도)"임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와 보라'며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놀라운 복음의 증인으로 살며 믿음의 반석으로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팻머스문화선교회는 2023년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초교파 교회학교 사역자 100명을 대상으로 성경학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가장 기대하는 열매를 묻는 질문에 <그래프 3>과 같이 ‘참여한 아이들, 교사의 변화와 성장(30.4%)’ ‘즐거운 신앙의 추억(20.9%)’ ‘새로운 영혼 전도(16.3%)’ ‘다음세대를 향한 교회의 관심과 지원(13.2%)’ 의 순으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래프 3> 성경학교를 통해 가장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2개 중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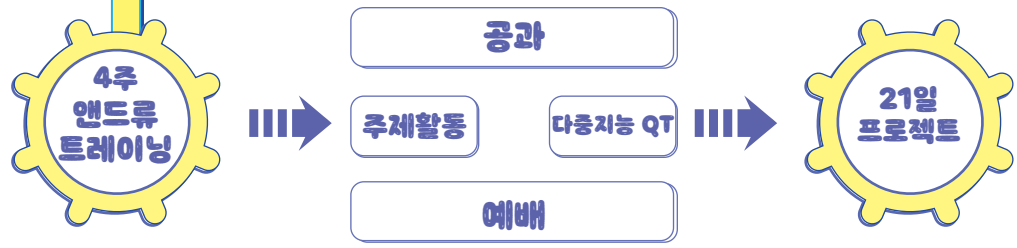


위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사역자와 교사는 우리 다음세대가 무엇보다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성경학교는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평생의 추억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와봐봐봐 컴앤씨>는 단 한번의 성경학교를 하더라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신앙의 추억을 우리 다음세대에게 남겨주고자 합니다. 첫째, 4주간의 전도 훈련을 거쳐 우리 교회 다음세대가 안드레로 성장합니다. 둘째, 안드레가 전도한 친구 베드로와 함께 성경학교에 오면, 온몸으로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는 즐거운 축제 현장이 펼쳐집니다. 1과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2과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3과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워질 모두를 기대하며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예배와 공과, VR 및 AR을 접목한 주제활동과 다중지능 큐티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다양하게 경험합니다. 셋째, 교회에서의 성경학교 이후 21일간 진행되는 ‘가정 성경학교’에서 다시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VBS 프로세스



VBS 과별 구성

주 제	와봐봐봐 Come and See!		
제 목	1과 The Calling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2과 The Confession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3과 The Change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님
키 워 드	# 초대, 전도, 소명	# 구원, 하나님의 뜻, 신앙고백	# 변화, 믿음, 능력
공과 본문	요한복음 1장 35~42절	마태복음 16장 13~20절	사도행전 3장 11~26절
핵심메시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된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사전 프로그램 (교회)
앤드류 트레이닝

후속 프로그램 (가정)
21일 프로젝트



I 오늘의 안드레가 내일의 베드로와 함께하는 성경학교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안드레는 '와 보라(Come & See)'는 예수님의 초청에 주저함 없이 따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했던 '와 보라(Come & See)'의 초청은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오늘, 이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다음세대들이 오늘의 안드레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 베드로에게, 의심하는 친구 베드로에게,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친구 베드로에게 가서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와서 보라!', '와봐 봐봐! Come & See!'를 외치도록 합시다. 오늘의 안드레가 성경학교로 초청한 다음세대들이 내일의 베드로가 되어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고 부흥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1

주제해설 영상



2

즐거운 성경학교 현장 영상

